

# 해외직구 장벽 낮추자 이용자 늘고 씹씹이 커져

〈직접구매〉

## 송장만으로 통관 허용, 관세 면제 품목 확대

## 관세청, 직구 물품 반품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평소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로 아이 옷과 자신의 액세서리를 구입해왔던 젊은 주부 김모(35)씨는 요즘 해외직구에 더욱 과감해졌다. 좀더 가격대가 나가는 가구나 전자제품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관세 면제 품목도 확대됐고 관련 서비스업체로 많이져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수입신고 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관세도 면제해주는 이른바 '목록통관' 품목이 모든 소비자로 확대된데 이어 3일 이상 걸리던 통관기간도 크게 축소되는 등 해외직구 여건이 개선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구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외직구 캐시백 서비스 업체인 이베이즈가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확대된 지난달 16일 이전과 이후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구매액을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이후 열흘간 1인당 구매액은 170달러로 이전 5주간 평균 구매액 135달러보다 약 26%가 늘었다.

오픈마켓 옥션의 해외직구 서비스인 '윌클릭직구'도 이 기간 동안 가방과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등 직구족이 자주 이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이후 지난 27일까지 2주 동안 베이비·키즈 카테고리 판매액은 전년대비 10% 늘었다. 특히 의류는 겹, 폴로, 크록

스 등 미국 브랜드 제품이 인기였으며, 장난감은 스텝2, 레고와 같은 유아용품이 관부가세가 사라지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또 여성과 남성 의류 판매도 각각 15%, 10%씩 증가했으며, 커피머신을 비롯한 주방기구도 20% 증가했다. 주로 200달러 이하의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

옥션 관계자는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외 직구 인기 품목이던 액세서리, 전자제품, 가방, 집화 등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직구 이용률이 높은 여성들이 자주 구매하는 유아용품 및 패션의류 잡화, 가구류 주문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여건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이것만 믿고 이것저것 샀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관부가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세 기준 산정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서로 다른데, 목록통관은 물건 가격과 세금, 구매지역

내 배송요금이 2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일반통관은 여기에 선편요금(한국까지 배송료)도 고려해 15만원이 넘지 않아야 할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배송료는 실제 배송료가 아닌 관세청이 정한 과세 운임표를 기준으로 한다. 환율 역시 관세청이 매주 산정해 고시하는 고시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 밖에 항공과 골프채, 프로젝션TV, 200만원 이상의 고급시계 등 일부 품목은 품목별로 특례세, 농특세, 교육세 추가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0.90 (+7.42)

▼ 금리 2.51% (-0.07)

▲ 코스닥 558.94 (+3.67)

▼ 환율 1029.10원 (-3.00)



한국전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부지(7만9342㎡). 한전은 부지를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 '금싸라기' 한전 본사 터 누구품에?

### 연내 매각... 현대차·삼성 눈독

### 성사뻔 혁신도시 이전 탄력

연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의 서울 본사 부지 매각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한전 부지는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부지를 놓고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 본사 부지 매각이 빨라질수록 혁신도시 이전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은 1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7만9342㎡의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 가치를 반영한 최고가 일반 경쟁 방식이 선정됐으며 입찰에 개인과 법인, 공동입찰 등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시비를 차단하고 입찰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매각 시한도 앞당겼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본사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데, 관계 법령상

'지방 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가 매각 시한이다. 하지만 한전은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지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시지가는 1조4837억원, 장부가액은 2조73억원이지만 시세는 3조~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부지를 팔아 부채 감축 등에 쓸 방침이다.

한전은 경쟁입찰 등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월 말쯤 매각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인수전도 급속도로 불붙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 본사 부지에 신사옥과 호텔, 컨벤션센터, 자동차테마파크 등을 한 곳에 모으는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삼성그룹은 2011년 삼성생명을 통해 한전 본사 부지 근처 한국감정원 부지를 사들였으며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함께 한전 터를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만들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은행,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21일~8월1일까지

광주은행(은행장 김강학)이 신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그림대회는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광주은행 본점 2층에 위치한 광주은행 금융박물관에서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대회 지정 도화지를 배부받아,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지정 도화지는 3000장이 준비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현장 접수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가 이뤄지며 마감일은 8월 8일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기아차 쏠렌토 200만대 판매 돌파

기아자동차는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인 SUV 쏠렌토가 올 6월까지 총 206만9033대가 판매돼 출시 12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대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쏘렌토 200만대는 일렬로 세우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과 부산을 10여 차례 오갈 수 있고, 수직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을 380개 포개 놓은 것과 같은 높이다.

쏘렌토는 SUV 특유의 강인한 디자인과 안락한 승차감 및 고급 편의 사양 등 뛰어난 상품성을 기반으로 한 기아차의 대표 베스트 셀링 모델이다. 출시 첫해 9만4782대 판매를 시작으로 2010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4년 만에 누적 판매 200만대를 넘어섰다.

쏘렌토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내 SUV 중 최대 판매 차종으로, 2011년에는 14만6017대가 판매돼 미국 출시 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 쏠렌토의 폴체인지 모델 신차(프로젝트명 UM)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쏠렌토의 판매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7일 지역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고객이 수입산 체리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부자들의 과일' 수입 체리

### 소득 높을수록 많이 구입

### 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체리가 '부자들의 과일'임이 입증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수입 체리를 구매한 경험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올 상반기 수입 체리를 구매한 소비자의 가구별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월 400만원대 이상이 응답자의 66.4%(593명)를 차지했다.

특히 체리 구매자의 가구별 소득분포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1.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9.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1%, 200만원 미만 5.7% 등의 순이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거주를 하면서 체리를 맛본 적이 있는 고소득 계층들이 자유

무역협정(FTA) 등으로 체리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대거 구매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체리 등 일부 품목이긴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수입과일 선호도가 점점 올라, 국내 과수 농가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체리를 구매한 소비자의 52%는 포도를 대신해 구매했고 토마토(11%)와 귤(9%)을 대신해 샀다고 말했다.

광고 수입도 늘면서 다른 과일 대신 구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복숭아 대신 망고를 사는 비중은 38%였다. 이어 참외 22%, 감귤 12%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니 담쟁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 목포(삼화) 274-5987 |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 서울 본사: 02-454-7722 | 기타지역 080-777-0555

서구 352-7788 | 목포(건영) 243-7463 | 전라남도 | 순천 744-8605 | 목포(남원) 243-7463 | 여수 654-7755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력 외벽 | 계랑기와 지붕 | 사료탱크 |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솔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래트 지붕 / 아스팔트 형광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지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